

광주는 66일간 '미술 천국'

07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오늘 개막
08 세계 미술 거장들 대거 광주로

현대미술의 대항연인 2008 광주비엔날레가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7·14·16·20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 등 1천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식을 갖는다.

이날 개막식에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치르기로 한 재단의 방침에 따라 광주 시민들이 대거 초청됐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달 개막식에 참가할 보통 사람들을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하는 '빛의 사람들 0708'을 통해 708명의 시민 참석자들을 뽑았다.

특히 케이 소피 라템마이어(Cay Sophie Rattemeyer)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등 세계 미술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인사 70여명과 뉴욕타임스 등 해외 유명 언론인 40여명이

참석해 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인다.

식전 행사로 개막 30분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이번 전시를 홍보하는 동영상 상영되고, 브라스밴드인 '킹스턴투스카'가 흥겨운 음악으로 흥을 돋운다. 이어 '지금 여기, 길 위에서'를 주제로 이번 전시의 출품작들을 소개하는 영상쇼가 펼쳐진다.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상임부 이사장은 이날 "창설 13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매 대회마다 차별화된 전시기획으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광주비엔날레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개최를 선언한다.

이번 비엔날레를 기획한 오쿠이 엔위치 예술총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주제없이 열리는 대회답게 일정한 격식이나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객들이 마음껏 즐

이 작가를 놓치지 마세요!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요하힘 슐렌트→박진아→지니·마이다간→조은지→히로시 수키토→한스 하케→이주요→조동환·조해준→정서영←잔 알타이→황지영→제니퍼 알로라→남화연→라넷→고승욱→실과 굽타→아트 콘덕타→니나 피셔·마로안 엘사니
- ▲광주시립미술관=고든 마타 클락→켄툼→이만 이사→레자피아다사→레이문도 알바노→집 수광카트→아피난 포쉬아나다
- ▲의재미술관=마리아나 브니모브→브루스 코너→하산간→존 취리아→왈리드 사텍→코헤이 요시유키→프라넬 소이→박주연
- ▲대인시장=마문호→백기영→신호윤→구현주→박문중
- ▲광주극장=라이나 베르너 파스빈더

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8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는 5·18광주민중항쟁을 형상화한 대규모 거리 퍼포먼스인 '빛'이 열린다. 미국 뉴올리언스 현대미술센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클레어 탄 콘스의 지휘로 200~500여명의 시민과 참가자들이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연례보고(Annual Report)'라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열렸던 주요 전시회 가운데 엄선된 36개의 전시회를 비롯 36개국 126명의 작품 1천여점이 전시된다. 오는 11월 9일까지 중외공원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중심으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극장, 의재미술관, 대인시장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새만금 본격화... J프로젝트 '흔들'

국제공항·신항만 조성, 무안공항 등 타격 클 듯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전남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J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이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9개월째 늦춰지고 있는데다, 4일 발표된 새만금 개발 계획에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성 계획이 새로이 포함되면서 J프로젝트 핵심 인프라인 무안국제공항은 물론 투포트(Two Port) 정책의 한 축인 광양항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이날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활

용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전북도의 요구에 따라 16선석 규모의 신항만을 짓도록 돼 있어, 부산과 함께 투포트 정책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광양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만금이 국제공항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이 J프로젝트와 중복되어 있는데다 정부가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으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하나로 묶여 있어, 새만금 개발 계획이 자칫 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최근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권 아래 시작된 J프로젝트보다는 새만금사업에 정책적인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J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J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삼호·구성·초송 등 3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와 농림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갖가지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다.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심의도 개발대상지의 면적에 대해 농림부가 이견을 제시하면서 25일로 전격 연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말미어에 이은 최고의 블록버스터 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두대,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두대

CHICAGO THE MUSICAL

10월 3~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비엔날레는 전 세계 각국 문화교류의 최첨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카고'는 100주년 미국 자동차의 메카로 유명한 곳, 자동차의 신도시인 인디애나폴리스를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뮤지컬계의 신화적 존재로 각계 각계 100년 초연된 '시카고'는 30여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공연되며 최다 관객을 유치한 뮤지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수 14인조 레퍼토리 밴드인 라이노 밴드(Lyno Band)는 'All That Jazz', 'Beverly Hills Cop' 등 주류 음악계의 최고 인기 음악가들과 함께 이 뮤지컬을 위한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뮤지컬계의 신화적 존재로 각계 각계 100년 초연된 '시카고'는 30여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공연되며 최다 관객을 유치한 뮤지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일 시: 2008년 10월 3(금)~5(일)일
● 공연 시간: 금요일 오후 2시, 7시 /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 일요일 오후 3시
● 장 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광주일보 KCTV 1111
● 주 관: KCTV
● 공연 문의: (062)220-0541, 1588-0766
● 인터넷예매: www.ticketmaru.co.kr
● 예매처: 티켓마루 / 인터넷 / 광주은행

*10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660조 ... 가구당 4천만원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가 660조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08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622조8천948억 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관매신용:37조4천112억 원)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60조3천60억 원으로 3월 말에 비해 19조8천336억 원(3.1%)이 증가했다. 〈관련기사 11면〉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수(1천667만3천162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부채는 3천960만원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다.

예금은행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크게 늘어 총 9조2천557억 원이 증가했고 농협·수협 등 신용협동기구 대출은 5조1천634억 원이 늘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 증가액은 6천674억 원, 국민주택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은 8천858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연합뉴스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100% 천연 성분, 100% 천연 성분, 100% 천연 성분

IOPE